

아랍통일의 꿈과 페르시아만 석유 (上)

- 신한종합연구소 -

이 연구자료는 최근 신한종합연구소의 전승일 책임연구원이 완성한 것으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전제한 것이다. <편집자 註>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중동사태를 이해함에 있어 그 원인이나 진행상황을 석유가격의 불안정이라는 한정된 경제적 틀 속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석유는 현대산업에 있어서 인체의 피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량확보와 가격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세계경제는 지난 제 1·2차 석유위기의 과정에서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는 세계적인 공통된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석유란 세계 최대 매장량과 세계 최대 산유량을 기록하고 있는 아랍세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로서 보다도 민족적 동질성과 종교적 윤리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아랍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석유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들에서는 세계의 석유수급구조가 공급우세에서 수요우세로 반전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급자의 가격

조정역할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고유가 시대의 도래가 필연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의 석유시장에 대한 연구가 소비국의 경제상황과 수요측면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다른 한쪽인 공급측면에 대한 연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계 석유시장인 Sellers' Market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최대의 공급능력을 지닌 아랍세계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아랍인에게 석유란 과연 무엇이며, 그들의 종교, 문화, 민족, 정치, 역사상 특성은 지금까지 석유정책과 석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와같은 공급측면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명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바로 이러한 견해를 시도해 보려는 것이 이 책의 발간 목적인 것이다.

610년경, 아라비아반도 메카(Mecca)의 하심(Hashim) 가문 출신이었던 모하메드(Mohammed)가 창시한 이슬람교는 알라(Allah)신의 유일신 사상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악한 본능과 싸워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자이신 하나님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상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종교이다.

또한 이슬람교는 알라신의 계시가 이제까지 모세(Moses)와 舊約聖書의 詩篇 및 예수(Jesus)를 통하여 3번 있었으나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았으며 이슬람은 전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까지도 신에게 기꺼이 바치려 했던 이브라함(Abraham)의 확고한 믿음과 복종하는 삶을 복원하는 것만이 그들의 경전인 코란(Quran)을 통한 최후의 계시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교도인 무슬림(Muslim)들은 아브라함이 유대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조상으로 섬기고 있으며 예수 또한 27번째 예언자로서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같은 신앙적 뿌리를 두고 있던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지금에 와서 철저하게 적대적 관계를 보이는 것은 중세기의 十字軍 전쟁과 19세기 말엽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시오니즘(Zionism)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630년경, 모하메드는 처음으로 이슬람교를 통하여 혈연관계에 바탕을 둔 베두인(Bedouin) 중심의 부족사회를 거대한 종교국가로 발전시키며 모든 무슬림들이 평등성을 유지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족통일체로서의 개념인 아랍(Arab)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하메드에 의하여 건설되었던 민족통일체로서의 아랍은 그의 사후에 후계자임을 자처하던 正統 할리파(Khalifa)시대를 거치면서 부족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 총 4명의 할리파중 3명이 암살당하는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第3代 할리파였던 오스만(Othman)과 第4代 할리파인 알리(Ali)와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아랍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여 오늘날까지도 종파의 발생과 혈연적 정통성을 놓고 아랍세계가 내부적 분열상태에 놓이게 된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랍세계는 진정한 모하메드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종교적 열망으로 말미암아 민족통일체를 형성하는 주체 세력이 누가 되는가 하는 정치적 주도권의 싸움이 주류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알라신의 계시인 코란과 모하메드의 언행을 수록한 하디스(Hadith)에 입각하여 제정된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h)를 그 생활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모하메드가 건설하였던 이슬람공동체

의 재현을 우리나라의 남북통일과 같은 민족적 염원으로 간직하는 정통성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오늘날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中東위기도 이러한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후세인 대통령 자신이 모하메드의 순수한 혈통을 이었다는 가문의 우월성과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통리아랍의 중심지로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랍민족의 지상과제이자 모든 무슬림들의 신앙적 명제인 아랍통일의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에 걸쳐 정치적인 통일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오늘날 아랍통일의 꿈과 개념은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는 石油에 대한 아랍인들의 인식변화와 아울러 EC의 경제적 공동체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자극받아 그들 스스로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경제원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선 아랍인들의 石油에 대한 인식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石油은 알라신의 축복으로 인한 선물로서 농토를 빌려주고 일정한 소출물을 받는 것과 같은 재산소득의 일종인 지대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따라서 아랍인들 스스로 유전을 개발한다거나 石油을 경제적인 생산품으로 활용하려는 합리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사막이면서 그렇다고 없어 지지도 않는 땅을 서구의 메이저들에게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租鏹料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오니즘을 내세우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西歐 열강에 경제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아랍민족주의에 입각한 石油무기화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石油무기화에 의한 제1차 석유훁위가 이라크의 이탈로 말미암아 5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랍세계 유일한 자원인 石油을 이용하여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경제적

이해가 싹트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EC가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한 정치적 통일의 단계로까지 발전될 조짐을 보이자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페르시아만 6개국은 걸프協力委員會(GCC)를 구성하고 정치적 노력들이 이룩하지 못한 초기 이슬람공동체의 실현을 경제적인 통합으로 부터 시도해 보자는 외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中東경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石油을 새로운 매개체로 하여 아랍통일의 꿈을 달성해 보려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와 새로운 시도는 그동안 착실한 진전을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된 蘇聯과 東歐제국에서 대변화가 초래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으리라 예상된다.

더우기 아랍민족주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팔레스타인(Palestine)문제에 있어서도 美國을 비롯한 西歐제국이 과거와 같이 세계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 있어서 UN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으로 보여져 정치적 의도를 드높이려는 아랍민족주의는 점차 그 열기가 식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구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石油·石炭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과 더불어 향후의 石油소비는 장기적으로 보아 동결 내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산유국의 石油政策 또한 대체에너지와의 경제적 비교를 통한 점진적 유가상승책을 쓸 것이므로 石油가격은 주요 소비국의 겨울철이 끝나는 내년 4월경 배럴당 25달러 이하의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이슬람 공동체의 이해

1. 中東과 아랍인

(1) 정치적 의미로서의 중동

中東(Middle East)이란 19세기까지 북쪽의 시리아에서 레바논을 거쳐 이집트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지역인 근동(Near East) 과 극동(Far East)의 중간지역을 지칭하는 지역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중 연합군이 군사작전의 부대편성을 위하여 그 개념을 확대하면서부터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근동의 모든 나라들과 지중해연안의 북아프리카지역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아 및 모로코를 포함하는 범이슬람 문화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리학적 구분에서 시작된 중동의 개념은 유럽의 기독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범이슬람교권을 총칭하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오늘날 아랍연맹(The Arab League)에 가입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7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PLO등 5개국, 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의 4개국, 서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아, 지부티의 5개국 등 모두 21개국을 일컬어 中東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란은 페르시아국가로 분리되어 정치적으로는 中東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다.

(2) 종교적 의미로서의 아랍인

이집트, 수단, 에디오피아 등 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햄족(Hamites)의 일부가 홍해를 건너와 아라비아반도의 나즈드(Najd)지역과 예멘으로 이주하면서 유목을 생활화하던 셈족의 출현이 아랍인의 효시이다.

이러한 셈족(Semites)은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아들인 shem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기는 하나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키 어려우며 다만 이들이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변에 이주 정착하면서 바빌론인, 앗시리아인, 칼데아인, 페니키아인 등으로 불리워졌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中東지역에 사는 민족을 우리가 아랍인(The Arabs)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와 같은 종족적,

註 1) 창세기 10장 1절.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언어적, 종교적 의미를 명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랍인이란 아라비아반도에 사는 아라비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al-Quran)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아랍어(Arabic)를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다.

원래 아랍어로 코란은 아라비(Arabi)와 같은 뜻으로 쓰여졌으므로 초기 이슬람교회를 이루었던 메디아 지역의 부족공동체가 이슬람의 선교를 매개로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코란의 말씀을 추종하는 자, 즉 아라비를 행하는 자라는 뜻에서 아랍인은 바로 무슬림을²⁾ 뜻하는 것이다.

2. 전통적인 자연관과 인간관

(1)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란 그리스어로 강 사이를 뜻하는 것으로 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길이 640km, 너비 200km의 비옥한 평원을 말한다. 그 범위는 현재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의 북동부, 이란의 남서부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해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어나는 홍수의 범람은 국가적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홍수와 관련하여 세계 最古의 敍事詩로 알려져 있는 길가메시서사시(Gilgamesh Epoth)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비판적 가치관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루크 지방의 왕이었던 길가메시는 북쪽의 숲속에 살면서 홍수를 일으키게 하는 죽음의 신인 훔바바를 치기 위하여 친구인 엔키두와 함께 고행의 길을 나선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행끝에 훔바바를 없애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싸우는 과정에서 친구인 엔키두도 함께 죽고 만다.

친구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길가메시는 또다른 죽음의 신이 있음을 깨닫고 또다시 영생의 길을 찾아 헤맨다.

드디어 멀리 聖者의 섬에 사는 우트나피시탐을 만나

영생의 비결을 물어 보았으나 그 또한 죽지 않는 비결을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옛날에 신이 일으켰던 대홍수(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불로초를 바다에서 캐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그가 일러준 방법으로 불로초를 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잠시 쉬고 있는 사이 뱀이 이 불로초를 먹어 버려 길가메시는 실망과 슬픔에 찬 빈손으로 홍수가 범람한 우루크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길가메시의 슬픔속에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홍수를 악의 신으로 간주하였으며 인간의 내재적 힘만으로는 우주와 자연의 불확실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초자연적인 종교적 성향은 절대자 에로의 자연스런 귀의에 도달하여 인간은 신에게 봉사하기 위한 존재이며 인간의 가장 큰 덕망이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기본교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더불어 中東지역의 고대 문명 발상지인 이집트는 예로부터 赤과 黑의 땅이라고 불리워졌다. 붉은 것은 광활한 사막의 언덕이며 검은 것은 나일강을 따라 허리띠처럼 펼쳐진 비옥한 계곡을 의미한다.

나일강 또한 매년 6월부터 초가을에 걸쳐 범람하기는 하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현재 고대 유적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이집트에서는 �핑크스와 피라밋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범람의 정도가 메소포타미아에 비하여 매우 작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홍수를 인간의 적으로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토지를 기름지게 하는 축복과 구원으로 보았을 것이다.

또한 이집트는 나일강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항구로 개발하기 힘든 넓은 백사장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험준한 산맥과 폭포가 가로막혀 있어 외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지니고 있으

註2) 무슬림(Muslim) : 신의 뜻에 순종하는자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를 말한다.

므로 이집트인들의 대체적인 인생관은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거대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통치자의 등장이 필연적이었으므로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神政정치가 실시되었다.

이때 제사를 행하는 제관들이 귀족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왕의 영지나 귀족 소유지의 소작 농민이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노예처럼 완전한 인격의 무시는 당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매우 제한되었다.

또한 절대적인 지배계급의 존속과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습을 낳게 하여 개성적인 개인의 출현이 어려웠으며 집단적 행동양상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中東에서 정치나 종교지도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개인적인 명성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상은 그대로 이슬람교의 기본체제를 형성하는 골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슬람 (Islam)

(1) 코란 (al-Quran)

코란은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창시자인 모하메드(Mohammed) ³⁾가 40세 되던해 히라산(Hira) 동굴에서 천사인 가브리엘(Gabriel)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코란은 아랍어로 「읽혀야 할 것」을 뜻하고 있으며 계시받은 모하메드의 말은 초기의 사도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거나 낙타의 골편, 야자수 나뭇잎등에 붙여 전한 문자로 기록되어 오다가 646년경 제3대 할리파(Khalifa)인 오스만(Othman)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현행 코란은 총 114수라(surah, 章)에 약 300페이지의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입으로 독송하기 편하게 음악적인 운을 띠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1수라는 7구절로 된 짧은 것으로서 「알리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최후의 심판날에 주인이시다」라는 그리스도교의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슬람교들에게는 가장 많이 독송되는 부분이다.

또한 모든 수라에는 「메디나 계시」 또는 「메카 계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메카 계시는 주로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짧고 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메디나 계시는 법적인 해석,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길고 산문체적인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코란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최후의 계시로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예수와 같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코란의 주요 사상

알라(Allah)신의 유일신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알라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며 귀의하는 것이 최고의 덕으로서 알라와 대등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죄인이므로 그리스도교에 예수와 같은 구세주의 개념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으므로 알라신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살아갈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은 본래 악한 것이어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때 끊는 물과 구리를 먹게 되는 지옥에 빠지게 되므로 본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즉 내적성전(Jihad)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 즉 외적성전을 끊임없이 행하여야만 확실한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지역의 정복을 정당화하였으며 피정복지의 주민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코란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자연은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소멸해 간다는 자연법적인 사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신의 창조물이며 선물이라는 천지창조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론은 그리스도교의 창세기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最古의 창조설화인 엘루마 엘리시(Eluma Elish)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일신인 알라를 자비하신 이, 창조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 마지

註3) 세계 언어는 로마어로 표기하기 어려운 음이 있기 때문에 모하메드는 Mohammed, Mohamed, Muhammad, Mahomet 등으로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고유명사들도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막 심판자, 멸망시키는 이, 복귀시키시는 분, 모든 것을 듣고 보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등과 같이 모두 99개의 표현으로 그의 전지전능성을 서술하고 있다.

(3)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세계에서 보는 그리스교는 원래부터 이질적인 종교로 비쳐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교에서조차 새로운 종교가 아닌 하나의 이단으로 해석할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코란의 제2수라에 의하면 모하메드는 알라신의 계시가 모세(Moses)와 구약성서의 시편 및 예수(Jesus)를 통하여 3번 있었으나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았으며 이슬람은 전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Abraham)의 순수한 유일신 사상과 복종하는 삶을 복원시키는 것만이 코란을 통한 최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이슬람의 신앙적 조상으로 여겼으며 예수 또한 27번째의 예언자(Nabi)로서 존경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과 부활론을 부정하고 자신도 최후의 예언자-28번째 예언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슬람의 전래사상에 의하면 우주는 신, 천국, 하늘, 땅 및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늘도 일곱, 땅도 일곱, 지옥도 일곱개나 있는데 모하메드가 말을 타고 하늘을 찾아간 날 밤에 제1하늘에서 아담(Adam), 제2하늘에서 예수와 세례요한, 제3하늘에서 요셉(Joseph), 제4하늘에서 이드리스(Idris), 제5하늘에서 아아론(Aaron), 제6하늘에서 모세, 그리고 제7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교적인 인물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신앙적 뿌리에 근거하여 이슬람은 이스라엘 지방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유대교에 대하여 새로운 회당을 건립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의복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입게하는 등의 차별책을 쓰기는 했으나 종교지도자의 임명등과 같은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다신교와 달리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여 왔으며 예루살렘을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추앙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호이해의 관계에 결정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스도교도들의 성지순례를 방해하면서 비롯된 1095년부터 1291년까지의 십자군 전쟁과 19세기 말엽의 유대교를 정치운동화시킨 시오니즘(Zionism)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4) 무슬림(Muslim)

이슬람세계는 최대 일종의 셈족을 주축으로 수없이 많은 오랜 전통을 지닌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사회의 구성요소는 지극히 복잡하고 또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는 이슬람교도들인 무슬림들은 코란과 하디스(Hadith)에 입각하여 제정된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h)를 생활의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공통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디스란 모하메드와 그의 동료들의 언행을 수록한 것으로서 무슬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사회인 초기 이슬람공동체(Umma)의 생활모습이 구두 전승형태로 전해내려온 것을 말하며 샤리아란 인간에 의하여 바뀌어 질 수 없는 神定法으로서 유대교의 탈무드(Talmud)와 같이 무슬림의 개인생활이나 공동체생활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위와 같은 샤리아에 따라 생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샤리아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① 의무적인 행위(obligatory)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② 권장할 만한 행위(recommended)

可償할 만한 행위로 이것을 행하면 구원의 길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으나 행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는다.

③ 허용되는 행위(permitted)

예를 들면 이혼이나 파혼과 같은 행위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나 벌도 받지 않는다.

④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objectionable)

허용은 되지만 좋지 않은 행위로 이것을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으나 그래도 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 금지된 행위(prohibited)

돼지고기를 먹거나 술을 먹는 것과 같이 반드시 행하여서는 안될 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행하면 알라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5) 무슬림의 5대 의무

샤리아의 법률에 따라 무슬림들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무로는 증언, 예배, 회사(喜捨), 단식, 순례의 5가지가 있다.

① 증언(Shahadah)

수라 1장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이외의 신이 없음을 증언하며 모하메드가 알라의 예언자임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여야 한다.

② 예배(Salat)

일정한 시각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행하는 예배로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일출시에 4번, 정오에 10번, 오후에 10번, 석양녘에 8번, 자기전에 13번 등 모두 5차례에 걸쳐서 45번의 절을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 행한다.

또한 금요일 정오에는 모스크(Mosque)라 불리우는 교회에서 집단체배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본래 십자가나 성모마리아상과 같은 것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스크에서는 모자이크(Mosaic)를 제외한 모든 장식물을 걸 수가 없고 다만 메카를 향할 수 있는 이정표인 키브라(Qibla)만이 놓여져 있다.

③ 회사(Zakat)

국가재정과 선교자금의 기반으로 쓰이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표시로 모든 무슬림은 자기수입액의 2.5%를 반드시 회사하여야 한다.

④ 단식(Saum)

성년의 나이에 이른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Ramadan)기간중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음식, 흡연, 성적인 접촉 및 과격한 말을 삼가고 자신의 죄를 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코란을 독송하여야 한다.

⑤ 순례(Haji)

성년에 이른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12월인 히자(Hijja)의 제 8, 9, 10일 3일동안 메카와 메디나에서 열리는 대축제에 적어도 일생에 한번은 참가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옷에 따른 빈부귀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흰 옷을 입어야 하고 머리와 손톱을 깎는 등 최대한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순례의식은 매우 엄숙하면서도 극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첫날에는 메디나의 대모스크에서 공동예배를 드린뒤, 메카와 메디나의 중간도시인 미나(Mina)에서 알라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로 양을 바치고, 메카의 두언덕인 사파(Safa)와 마르와(Marwa) 사이를 7번 왕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젼젼(Zem Zem) 우물의 물을 떠서 자기가 죽을때 입을 수의에다 적신다음, 알라신이 아담과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 검은 돌을 세웠으나 노아의 홍수때 없어진 것을 그후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알라신과의 약속을 상징하는-카바(Kaaba)신전의 흑돌 주위를 7번 돈후에 마지막날에는 모하메드의 고별 설교가 있었던 아라파트(Arafat) 언덕에 올라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알라신여, 제가 여기 왔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6) 이슬람 월력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향하던 서기 622년 7월 16일을 히지라(Hijira)라고 하며 초년, 초월, 초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력은 달의 모양 변화에 의한 태음력을 기본으로 하여 1달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년은 <表 1>에서와 같이 서기력보다 10일정도 적은 354일 또는 355일이 된다.

또한 30년을 주기로 윤년에 해당되는 355일이 11차례, 평년이 19차례씩 반복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슬람 월력

	월 명	일 수
제1월	무하람(Muharram)	30일
제2월	사파르(Safar)	29일
제3월	라비(Rabi) 전월	30일
제4월	라비(Rabi) 후월	29일
제5월	주마다(Jumada) 전월	30일
제6월	주마다(Jumada) 후월	29일
제7월	라자브(Rajab)	30일
제8월	샤반(Shaban)	29일
제9월	라마단(Ramadan)	30일
제10월	샤왈(Shawwal)	29일
제11월	덜 카다(Dhuil Qadaa)	30일
제12월	덜 히자(Dhuil Hijja)	29일 또는 30일
1년		354일 또는 355일

다른 지역의 월력이 주로 농사를 짓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에 비하여 이슬람력은 종교적인 현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슬림들이 유년기를 빼고 약 30년에 이르는 일생동안 단식을 함에 있어서 매년 계절이 조금씩 바뀌는 다양한 라마단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슬람월력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0년의 라마단 기간은 대략 5월 5일~6월 5일 사이가³⁾ 되므로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원유과잉 생산에 따른 유가하락을 본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7월은 전쟁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라마단 기간을 바로 지난 시점이 되어 이슬람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중동에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의 중동사태가 장기적인 대치국면으로 이어진다면 1991년의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는 4월 25일 전후가 사태해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이슬람 시대의 개막과 쇠퇴

1. 예언자의 등장

(1) 정치적 배경

서기 600년경의 중동지역은 로마제국을 대신한 비잔틴제국(동로마제국)이 터어키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을, 페르시아의 제3대 왕조인 사산제국이 이라크와 이란을 지배하면서 양대 세력간의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어 왔다.

비잔틴제국은 로마시대의 옛 영토였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회복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으며 사산제국은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하여 서로 실세없는 전쟁을 치름으로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질 무렵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Bedouin)과 오아시스(Oasis)의 정착민을 중심으로 한 부족국가가 균용할거하는 세력의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다.

(2) 사회적 배경

아라비아 반도의 베두인은 넓은 사막을 배회하면서 초원으로 유목하는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정착민들은 소규모의 농사일을 하거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메카는 향료로 유명한 예멘과 메소포타미아 및 에디오피아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오아시스로서 중계무역과 외부문물의 유입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인근 부족의 부족신을 모시는 종교적인 순례지로서 카바(Kaaba)의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상인과 순례자 및 여행객들이 몰려들게 되자 메카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었으나 정신적, 도덕적인 타락은 그 도가 매우 심하여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메디나는 원래 유대인들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하여 농업과 금은세공업이 발달하였으나 후에 아랍부족이 이 도시에 정착하게 되면서 부터 두 민족사이에 정치와 경제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3) 모하메드 이븐 압둘라(Mohammed Ibn Abdulla)의 생애

알라신의 예언자이며 사도인 라술라(Rasullah)로 불리워지는 이슬람의 창시자로서 570년경 메카의 명문이었던 쿠라이쉬(Quraish) 부족의 하심(Hashim)家에서 압둘라(Abdulla)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따라서 그는 할아버지인 압바스(Abbas)에게서 양육되었으나 6살과 8살때 어머니와 할아버지마저 차례로 죽자 숙부인 탈리브(Talib) 밑에서 자라나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가 25살때 시리아를 왕래하며 상업에 종사하던 중 당시 40살의 미망인인 하디자(Khadijah)와 결혼하여 3형제를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이와 같은 불행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자들을 힘닿는 데까지 돌보아주는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였으며 신앙심을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하여 목상을 통한 회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0세가 되던해인 610년, 히리산(Hira)에서 천사인

註4) 현재에도 무슬림에는 문맹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 지역마다 초생달을 맨처음 본때부터 새달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월력을 인쇄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라마단 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신의 계시를 듣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족들에게 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알라신의 소명을 받은 후 그는 부인인 하디자를 최초의 이슬람교도로 받아들였으며 당시 메카 사회의 도덕적 타락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약 4년간의 전도기간이 경과된 후 그의 신도수가 50여명에 이르게 되자 쿠라이쉬 부족의 지도자들은 모하메드가 메카의 지도자로 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조상전래의 신앙인 다신교를 비판하고 유일신을 제창하는 그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619년에는 하심가문의 가장이면서 그의 숙부였던 라합(Lhab)에 의하여 파문당하는 비운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620년 어머니의 고향인 메디나 주민들과 비밀 연락망을 취하여 70여명의 신도들은 메디나로 피신시킨뒤 그 자신도 622년 메디나로 이주하게 된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메카의 상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생활까지도 보장해 주는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Umma)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메디나에 최초의 움마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움마는 혈연중심의 부족공동체와는 달리 신앙적인 공동체로서 유대인 이외의 메디나 주민들에게 급속히 파급되기 시작하여 627년경에는 메디나 전체가 하나의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후 4차례에 걸친 전투끝에 마침내 630년 1월에는 메카를 점령하게 되어 아라비아 반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으나 2년뒤인 632년 “나는 그대들과 똑같은 인간이나 당신들은 이후에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므로 나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아라파트 언덕에서의 고별 설교를 끝으로 운명하였다.

(4) 아랍통일의 꿈을 펼친 모하메드

아라비아 반도에서 최초로 생성된 이념 공동체인 움마는 혈연관계에 바탕을 둔 부족사회를 이슬람의 교리에 의한 종교 국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민족통일체로서의 아랍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모하메드는 원래 종교적 형제애와 알라신앞에서 모든 무슬림들은 평등한 것이므로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특권계층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하였으나 그 스스

로는 이슬람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적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모하메드는 메카의 정복으로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건설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생애 마지막 2년간은 아랍민족의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미 아라비아 반도내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그는 아라비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는 대신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나 농산물의 일정액을 바치고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아라비아 반도의 각 부족이 모하메드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견상 아라비아 반도의 군사적인 통일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아랍부족과의 조약은 어디까지나 모하메드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조약체결의 당사자인 모하메드가 죽는다면 이 조약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슬람으로의 개종시에도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므로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무슬림이 된 부족이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우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재임기간이 고작 2년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의 죽음과 함께 움마 자체내의 분열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내의 각 부족으로부터 이슬람이 배교당하는 사태까지 초래케 된 것이다.

따라서 모하메드는 완전히 아라비아의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만 통일의 꿈과 가능성만을 제시한 채 그의 후계자들에게 소명을 넘기게 되었다.

2. 이슬람 제국의 건설

(1) 후계자(Khalifa)

모하메드는 모든 무슬림의 평등사상을 주창하여 그의 사후에 대비한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내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초기 이슬람교도들인 무하지룬(Muhajirun)과 메디나의 주민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안사르(Ansar) 사이에 권력 다툼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모하메드와 평화조약을 맺었던

많은 부족들이 모하메드의 죽음에 따라 조약이 자동 폐기되었다고 보고 이슬람을 배교하는 행동을 취하자 무하지룬의 원로이며 모하메드의 친구이자 장인인^{註5)} 아브 바클(*Abu Bakr*)과 오마르(*Omar*)는 움마의 붕괴 현상을 염려하여 안사르와의 제휴를 모색하였다.

그후 바클은 모하메드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초대 할리파로 선출되어 신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의 역할을 제외한 모든 모하메드의 권한을 승계하면서 움마에 도전하였던 부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강행하여 불과 1년 사이에 아라비아반도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그는 또한 코란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무슬림의 형제애를 고양시키기 위해 교우간의 전쟁을 일체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으로써 무슬림의 관심을 반도밖의 세계 즉 비잔틴 제국과 사산제국으로 돌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였다.

(2) 이슬람 제국의 실질적 건설자인 오마르(*Omar*)

초대 할리파였던 바클이 재위 2년만인 634년 사망하자 사전에 그의 후임자로 지명되었던 오마르가 제2대 할리파에 올라 이슬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바클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비잔틴과 사산제국의 영토에 대한 본격적인 정복사업에 올라 마침내 642년에는 사산왕조를 케멜시킵과 아울러 시리아와 이집트를 포함한 비잔틴제국의 주요영토를 거의 함락시켰다.

오마르는 10년간에 걸친 할리파 재위기간중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특성이었던 강한 종교심과 정의감을 갖고 모든 힘을 정복사업에만 쏟아 넣었으므로 내부적으로 후임자의 계승을 둘러싼 갈등과 중앙정부와 정복지 지방정부사이의 알력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가 6명의 원로 무슬림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후임자를 선출토록 하였으나 움마의 핵심세력인 쿠라이쉬 부족내에 오스만(*Othman*)과 알리(*Ali*)를 중심으로 한 양대 세력간의 충돌이 내란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던 644년, 오마르는 페르시아 출신의 기독교도 노예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비운을 맞는다.

(3) 제1차 내란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내에서 평등하여야 하며 특권계층의 출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모하메드의 가르침은 어느덧 정복사업의 성공에 따른 경제적 이득권을 놓고 심한 세력다툼이 벌어짐으로써 퇴색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스만은 쿠라이쉬 부족내에서 상업권을 확보하고 있던 우마이야(*umayya*)씨족의 적극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정복사업에 따른 경제적 결실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야망을 갖게 된다.

이에 맞서 알리는 모하메드를 키워준 숙부인 탈리브의 아들로서 모하메드와는 사촌형제였으나 그가 모하메드의 외동딸인 파티마(*Fatima*)와 결혼하여 사위가 됨으로써 혈연적인 모하메드의 후계자임을 내세워 오스만에 대항하는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오스만과 알리와의 싸움은 당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세력이 제3대 할리파에 추대됨으로써 잠정적인 승리를 얻게되나 훗날 이것이 제1차 내란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즉 오스만은 할리파의 자리에 오르자 그의 씨족들인 우마이야를 정복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족벌위주의 정책을 폈으며 코란의 정본을 편집케하여 이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위는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따라서 정복사업에 따른 경제적 과실은 더욱 더 우마이야파들이 독점하게 되자 656년에 정복지에 나가 직접 싸우는 전사들인 암사르(*Amsar*)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오스만을 살해한 후 알리를 제4대 할리파에 추대하였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마이야씨족으로서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무아위야(*Muawiya*)는 오스만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시리아인들과 피정복민 무슬림들을 규합하여 알리에 대항하니 이것이 곧 제1차 내란이다.

이후 양진영은 팽팽한 대치상태를 보이면서 이슬람세력을 양분하고 있었으나 661년 알리가 쿠파(*Kufa*) 사원에서 예매도중 암살당하자 이슬람 제국은 무아위야에 의해 재차 통일되었다.

3. 이슬람 공동체의 파괴자 우마이야 왕국

(1) 깨어진 모하메드의 꿈

註5) 모하메드는 첫번째 부인이었던 하디자가 죽자 친구(*Bahr*)의 딸인 9살의 아이샤(*Aysha*)와 재혼하였음.

알라신의 예언자인 모하메드가 죽은 632년으로부터 무아위야가, 이슬람제국을 재차 통일한 661년에 걸친 29년동안은 아랍세계에 실로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사산제국이 무너지고 비잔틴 제국이 힘을 잃어감에 따라 아라비아 반도의 3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던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부족 중심의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들이 대규모로 메소포타미아지방에 이주하여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정복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들이 속속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민족이동에 따라 새로운 문물의 유입이 가속화되었으며 군수물자의 조달과 정복지의 특산물이 빈번히 왕래됨으로써 상업이 크게 번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마이야씨족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적 특권계층이 발호하게 됨에 따라 무슬림끼리의 전쟁을 금지하는 이슬람의 전통은 깨어졌으며 제2대 할리파에서 제4대 할리파에 오른 오마르, 오스만, 알리가 모두 암살당하는 불행을 자초함으로써 초기 정통 할리파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알라신 안에서 모든 무슬림이 평등하며 특권 계급이 없는 지상의 낙원인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던 모하메드의 꿈은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2) 무아위야(*Muawiyah*)

제4대 할리파였던 알리를 암살하고 정치적으로 이슬람 제국을 통일한 무아위야는 초대 정통할리파의 붕괴가 후계자 체계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보고 자신의 씨족인 우마이야가 할리파위를 세습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는 또한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신앙적 결속이 남아있었던 메디나로부터 우마이야씨족의 세력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겼으며 전통적인 아라비아 반도의 무슬림 보다는 신흥 정복지의 새로운 무슬림들을 더욱 중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그는 신앙적 평등성에 근거하는 이슬람 제국의 이상과는 다르게 세습적인 신분제에 바탕을 둔 군주제를 펴므로써 후대의 사가들로부터 정식 할리파라는 칭호를 얻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인 왕으로만 불리워졌

을 뿐이며 오늘날 아랍의 각국이 봉건적인 토호들에 의해 분할되는 비운의 싹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4. 반대세력의 등장

(1) 하와리지 운동(*Khawarij*)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대 할리파였던 오스만은 자기 씨족의 사람만을 정복지의 총독으로 중용하여 정치·경제적 이권을 독점한 움마의 파괴자이므로 오스만의 복수를 기치로 내세운 무아위야의 행위는 알라신에 대한 도전이며 악이므로 무아위야와 전쟁을 치루는 알리를 돕는 것이 무슬림의 진정한 의무라는 움직임이 암사르이외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알리가 657년 싯핀(*Siffin*) 전투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무아위야의 휴전 제안에 따라 종전을 서두르게 되자 악과 타협한 알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리파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개별적인 반무아위야 투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를 하와리지 운동이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복원을 꿈꾸는 순수 종교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악을 목격하고도 이를 좌시하는 자는 배교자(*Murtadd*)이므로 이들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광신적이며 비관용적인 태도가 급진적인 무장투쟁으로 번지게 하였다.

따라서 오스만이 살해된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복수를 기치로 내세운 무아위야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아위야가 수립한 우마이야 왕권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불사하였으나 690년경 유세프(*Yusuf*)장군에게 대패함으로써 이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었던 이들의 후예는 오늘날 리비아를 중심으로한 북아프리카 지역과 오만등지에 잔존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현실이 이상적인 움마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을 때 과감히 순교를 택하는 과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시아(*Shiah*)운동

하와리지 운동이 알리에게서 등을 돌린 것과는 달리 알리의 진영에 남아서 그를 끝까지 지지한 파가 있는데 이를 시아파라고 한다.

그들은 예언자가 이루어 놓은 성스러운 공동체인

움마를 오류없이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하메드의 혈연적 후예들만이 정당한 후계자로서 할리파위를 이어야 하므로 모하메드의 사촌이며 사위이기도 한 알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로써, 680년 무아위야가 사망하자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세인(Hussein)⁶⁾을 할리파로 선출하고 무아위야 왕권 타도를 목표로 일어설 것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을 안 무아이야에게 후세인이 카르발라(Karbala)에서 살해됨으로써 실패로 끝나게 되자 시아파는 무력에 의한 정권장악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상류층과 특권계층에 영합하는 세력에 대한 피억압민의 사회적인 반항을 옹호하는 이슬람의 새로운 종파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즉 시아파는 국가와 기존질서에 복종하는 대다수의 주류파인 순니(Sunni)에 대항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던 신흥 정복지의 비아랍계 무슬림들인 마왈리(Mawali)들에게 알라신 앞에서의 평등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인도, 터키 등의 아라비아 반도이외의 지역에서 중요한 종교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5. 압바스(Abbas) 王朝

(1) 예언자 모하메드의 후에

모하메드의 할아버지인 압바스로 대표되는 하심가의 후예들은 무아이야 왕국의 정국 변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 훔마이마(Humayma)에 모여살고 있었다.

740년경 이 하심가의 이브라힘(Ibrahim)은 과격 시아파의 영향을 받아 하심가의 중흥에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심복인 아브 무슬림(Abu Muslim)을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는 아랍계 유목민들이 몰려살고 있던 호라산 지역으로 파견하여 세력을 규합하였다.

747년 이브라힘과 아브 무슬림은 마침내 무장봉기에 나섰고 호라산과 이라크지역을 거쳐 알리가 암살되었던 쿠파지역을 점령하려는 순간 이브라힘이 전사하자 그의

아우였던 알 압바스(Al-Abbas)가 쿠파를 도읍으로 하여 할리파의 자리에 오르니 이것이 곧 압바스 왕국의 시작이다.

(2) 진정한 이슬람 제국의 등장

압바스 왕국의 등장은 이슬람의 역사에 있어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나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정통 할리파 시대와 무아이야 왕국이 아라비아 반도인의 이민족 지배였던 것에 비하여 압바스의 등장은 그들의 주도세력이 정치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던 계층이므로 종래의 모든 특권적인 지위가 박탈되고 모든 무슬림들의 평등원칙이 확립됨으로써 인종과 출신지의 편견이 제거된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모하메드시대의 초기 이슬람 공동체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압바스 왕조의 제2대 할리파에 오른 알 만수르(Al-Mansur)는 그가 비록 시아파의 지원을 등에 업고 무아이야왕국을 타도하기는 했으나 과격한 시아파는 또다른 특권계층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를 것을 염려하여 모든 무슬림들이 평등한 이슬람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철저히 탄압하였으며 그들의 본거지였던 쿠파를 떠나 제국의 수도를 메디나 알 살람(Medinat al-Salam)⁷⁾으로 옮겼다.

그는 지름이 약 3.3km에 달하는 원형의 바그다드시를 건설하면서 『이전까지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곳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를 위해 이곳을 보전하여 주신 알라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저는 이곳을 건설할 것이며 저와 저의 후손들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라는 신과의 약속을 하였다.

이로써 이슬람 제국의 중심부는 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히 벗어나 농업과 상업이 번성하는 문명의 교차로인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아라비아 반도 중심의 이슬람으로부터 많은 이민족의 다양함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이슬람으로 승화되어 세계속의 이슬람으로

註6) 시아파에서는 알리의 첫째아들인 하산(Hasan)을 할리파로 선출하였으나 그는 무아이야가 제공한 연금을 받고 메디나로 돌아가 정계에서 은퇴하였음.

註7) 평화의 도시란 뜻으로 페르시아 이름인 바그라드(Bagindad)로 더욱 알려져 있음.

자리잡게 된 것이다.

6. 교파의 발생과 제국의 멸망

(1) 주류파인 순니(Sunni)^{註8)}의 형성

압바스조의 등장에 따라 이슬람제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대제국으로 건설되었으나 종교적으로는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우마이야 왕국시절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던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아랍인들이 압바스조에서는 정치적인 우월성을 상실하게 되자 코란이 아랍어로 쓰여져 있으며 메디나가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였다는 점을 내세워 신학적인 우월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 이성은 절대적인 신의 계시말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의 속성과 형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하와리지파와 쉬아파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무슬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신인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심이므로 비록 일시적인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심을 버리지 않는한 신에게 속한 자로서 인간이 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니파의 신학적 체계는 920년경 바그다드에서 활동하였던 알 아샤리(Al-Ashari)에 의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을 완성한 사람은 1100년경의 알 가자리(Al-Ghazari)이다.

오늘날 이슬람세계는 전 무슬림의 80%정도가 이 순니파에 속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교파만을 진정한 무슬림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교파의 발생

순니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며 전통적인 신학 체계의 확립에 주력할 무렵인 900년경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문화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신의 계시인 코란을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악의 집단인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하와리지파와 모하메드의 후계자는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의 혈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아파 및 코란을 그리스의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무타질라(Mutazila)파를 비롯하여 신비스러운 영(靈)을 이용하여 진리를 구하려는 영지주의, 내적인 종교체험을 중요시하는 수피(Sufi)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지도자의 필요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각종의 교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파는 알라신과 코란이외에는—심지어는 예언자인 모하메드까지도—그 어느 것에도 신성을 부여하지 않는 다수파인 순니로 부터 하나의 이단으로 배척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여 주던 정치지도자의 흥망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전 무슬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를 제외하고는 그 명맥이 극히 일부지방에서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3) 제국의 분열

약 200년에 걸친 이슬람제국의 통일은 940년경부터 중앙정부의 내분과 지방영주들의 세력강화로 점차 분열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극도로 호화스런 생활을 영위하던 할리파들의 종교적 도덕성이 타락하고 국가재정이 핍박을 받게 되자 지방의 총독과 군사령관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영주들이 각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민족적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할리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이다.

지방으로 부터의 재정수입이 벽에 부딪치자 중앙정부에서는 무슬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에 맞서는 서민들의 반란이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할리파의 권위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때마침 불어닥친 이슬람종교의 분파현상 등에 업고 제정일치의 군소 왕국들이 도처에서 건설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왕조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파티마(Fatima)왕국, 북부 이란의 사만(Saman)왕국, 바그다드를 중심으로한 부와이흐(Buwaih)왕국 등이다.

파티마 왕국은 시아파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사이드 이븐 후세인(Said Ibn Husain)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註8) 순니란 예언자의 행적에 따라 행하는자란 뜻으로 관습, 전통, 예언자의 언행을 뜻하는 순나(Sunna)에서 유래되었음.

<표-2> 이슬람의 순니파와 시아파

	종 교	특 징	분 포 지 역
순니파	이 라 크 학 파	코란과 전통인 하디스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규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에 없는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인간의 도덕적 관념에 의함.(인간의 이성을 약간은 인정)	남서아시아, 인도
	메 디 나 학 파	코란과 하디스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가능한 개인적인 판단을 금하므로 이라크 학파에 비하여 보수적인 경향이 강함	남부이집트, 서북아프리카, 스페인
	샤 피 (Shafi) 학 파	이라크 학파와 메디나 학파사이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함	나일강 하류, 동아프리카, 남서아라비아반도, 동남아시아
	와 하 비 학 파	순니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며 엄격한 성향을 띠고 있어 철저히 코란과 하디스에 의지하려 함	아라비아반도 대부분, 이라크 남서부, 요르단, 시리아 남서부
시아파	이 마 미 (Imami) 파	알리와 두아들인 하산, 후세인 및 그의 후손 9명을 포함한 12명의 직계후계자(Imam)을 믿으며 마지막 이맘인 모하메드가 다시 나타날 것을 확신함.	동북이라크, 북시리아, 레바논
	자 이 디 (Zaidi) 파	이맘이파가 12번째 이맘의 현신을 믿는 반면 자이디파는 이것을 믿지 않는 대신 후세인의 손자인 자이드(Zaid)를 5번째 이맘으로 인정함	예멘
	이 스 마 일 (Ismail) 파	이맘이파와 자이디파가 순니파에 대하여 온건적인 것에 반하여 극립분파로서 여섯번째 이맘인 자파르의 아들 이스마일까지 7명의 이맘만을 인정함.	이란, 인도, 시리아동부
	드 루 즈 (Druz) 파	이스마일의 한 분파로서 파티마왕국의 7대 할리파인 만수르(Mansur)를 신의 화신으로 믿음.	서부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알 라 위 (Alawi) 파	알리가 곧 신의 화신이라는 것을 믿는 가장 극렬한 종파	북부시리아, 해안고산지대, 터키

베르베르부족의 도움을 얻어 이스마일파의 교리를 포교 하면서 건설한 국가로서 압바스조와 순니파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동시에 스스로를 진정한 할리파라고 주장하였다.

이란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내세우는 나스르 이븐 아흐마드(Nasr Ibn Ahmad)가 페르시아 문화의 재건을 기치로 사만왕국을 창건하였는데 그는 겉으로는 압바스조의 할리파에게 복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 페르시아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부와이흐 왕국은 945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기근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자 시아파에 속했던 부와이흐 일가가 압바스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무력으로

로 점령하고 세운 왕국으로서 그는 순니파를 탄압하려 하였으나 영내 거주민의 대다수가 순니파인 관계로 이의 한계점을 인정, 유회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그는 의견상 할리파의 권위에 복종하는 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할리파를 마음대로 즉위 또는 폐위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4) 이슬람 제국의 멸망

중앙정부와 할리파의 권위가 실추되고 북아프리카의 파티마왕국에서도 자체내의 할리파위를 내세우게 되자 이슬람제국은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 군소 왕국의 흥망 성쇠가 계속되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후 1096년에서 1291년까지 약 200년에 걸친 7차례의 십자군 전쟁으로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무렵

징기스칸의 몽고족이 이슬람세계로 쳐들어 왔으나 수없이 많은 군소 왕국으로 갈라져 있던 이슬람제국은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철저히 살육을 당하여 외견상으로는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압바스조는 약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멸망하고 말았다.

따라서 아랍민족에 의한 이슬람 제국의 역사는 이곳에서 단절되고 후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몽고족이 세운 일한국(*Ilkhan*)을 거쳐 터어키족인 오스만제국(*Osman*)의 지배를 받게 됨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른 실질적 독립을 되찾을 때까지 거의 700년동안을 정치적으로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주류파를 형성한 순니를 중심으로 코란과 하디스에 의존하는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오늘날 초기 이슬람공동체로의 복귀를 꾀하는 아랍통합운동의 발판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아랍 재통일의 꿈

1. 근래 중동의 정치상황

(1) 북아프리카 지역

19세기초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내에 있었던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 국가의 번성에 따른 빈번한 전쟁으로 쇠락의 조짐을 보이자 각 지방의 총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내분이 일게 되었다.

이러한 때 해외 식민지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프랑스는 자국과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830년 알지에(*Algiers*)시의 점령을 시발로 이집트를 제외한 전 북아프리카지역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이집트는 당시 인도지역을 식민지로 확보하고 있던 英國이 무역과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프랑스와 영국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따라서 1841년 英國의 주도아래 열린 런던 협정에서는 이집트와 수단지역을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당시 이지역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에게는 세습적인 권한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세의 간섭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

의 반발이 의외로 강화되자 英國은 1882년 알렉산드리아항을 점령하고 이집트군을 섬멸함으로써 이집트지역을 英國의 실질적인 보호령으로 삼게 되었다.

(2)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의 2대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히자즈(*Hijaz*) 지역은 이슬람공동체의 요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745년경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나즈드(*Najd*)지방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와하브(*Wahhab*)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인 사우드(*Saud*)가와 협력하여 쇠퇴되어가던 이슬람교의 정통을 살리며 초기 이슬람공동체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아랍민족주의 운동이었던 와하비운동(*Wahabi Movement*)을 일으켜 반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총독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평정케하고 메디나를 점령하였으나 사우드가의 본거지인 리야드까지는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英國과 프랑스를 위시한 서구열강들도 무슬림들의 신앙적 고향인 이 지역에 대한 지배가 자칫 전 아랍권의 민족적인 반발감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군사적인 행동을 자제하였으므로 1902년 사우디가는 메디나 지역을 재차 탈환하고 예멘 및 페르시아만 지역의 英國보호령을 제외한 전 아라비아지역에 오늘과 같은 왕국을 건설하였다.

(3)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및 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상실한 오스만제국은 아랍 민족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더이상의 영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예언자의 가문인 하심(*Hashim*)가의 후세인 이븐 알리(*Husain Ibn Ali*)를 토후를 뜻하는 아미르(*Amir*)로 임명하고 시리아 및 메소포타미아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英國과 프랑스의 세력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獨逸등과 손을 잡은 오스만제국은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1916년 英國과 프랑스간의 조약인 사이크스 피코협정(*Sykes-Picot Agreement*)에 의하여 영토가 분할 점령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은 프랑스의 영향권내

에, 이라크와 요르단 및 쿠웨이트지역은 英國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며, 이스라엘 지역은 英國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관할하고 1917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성공한 소련은 이란 북부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이 지역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때까지 이들 서구열강세력의 실질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2. 아랍민족주의의 태동

(1) 와하비 운동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현실적인 참여의식이 낮은 수피파(Sufi)를 적극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원래 수피란 수프(suf), 즉 염색을 하지 않은 털옷이라는 어원에서 연유된 말로서 점차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 무슬림의 내적인 종교체험을 중요시하는 종파이므로 정치·경제적인 현실적 관심보다도 신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로 고행이나 명상과 같은 구도의 길에 정진하였다.

따라서 수피파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하여 주는 오스만 제국의 할리파에 대하여 전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1745년경 아라비아 반도의 나즈드지역에서 수피파를 이끌고 있던 종교지도자인 와하브(Wahhab)는 프랑스 루이왕가의 화려한 궁전생활을 그대로 모방하였던 오스만 제국의 종교적 타락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초기 이슬람공동체의 경제적 평등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무슬림들을 무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이른바 와하비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오스만 제국에 반항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가와 손을 잡게 되자 오스만제국은 이집트의 총독으로 하여금 무력으로 진압케 하고 그를 추종하는 수피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령을 내림으로써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아랍민족에 의한 이슬람공동체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들의 행적은 오늘날 최초의 아랍민족주의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시리아 신교도 대학의 학생운동

와하비운동이 비록 아랍민족에 의한 이슬람공동체의

재건을 부르짖기는 했으나 아랍민족에 의한 정권수립까지는 도모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정권수립의 조직적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866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세웠던 시리아 신교도 대학(The Syrian Protestant College)^{註9)}에서 부터였다.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던 이 학교의 학생들은 혁명적인 사상을 지닌 유럽계 외국인 교수들로 부터 시리아에서의 오스만 제국 추방에 대한 당위성을 전수받게 되었으며 동·서·남의 바다와 북쪽의 타우루스(Taurus)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로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하나의 아랍민족으로 존재해 왔었으므로 두개의 종교는 아랍민족의 이름으로 화해하여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1875년에는 이 학교 출신의 니므르(Nimr)와 알야지지(Al-Yaziji)를 중심으로 한 5명이 오스만제국 축출을 목표로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으나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리스도교라는 것과 유럽식의 사회체제와 정치사상을 본반도록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이슬람교도들로 부터는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그들의 노력은 훗날 아랍통합의 이념적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바아스당(Baath Party) 결성과 이집트의 나셀주의(Nasserism) 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무슬림 형제애운동

1928년 이집트의 국민학교 교사였던 22살의 반나(Banna)는 그리스도교와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허물어진 이슬람교의 비도덕성과 세속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초기 이슬람공동체의 순수한 형제애를 회복하자는 무슬림 형제애운동(Muslim Brotherhood)을 주창하였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외세에 의한 정치·문화·종교적 개입을 막고 코란과 하디스에 입각한 정치·법률·행정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치단결할 것을 추구하는 범아랍운동으로 발전하여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대인과의 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국의 영향권내에 있던 이집트의 화룩(Farouk) 왕을 외세의 앞잡이로 비판함으로써 1949년 반나가

註9) 현재는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The American University in Beirut)으로 개명되었음.

암살당하는 비운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시오니즘(Zionism)에 대항하였던 최초의 민족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3. 시오니즘과의 분쟁

(1) 유대인의 재등장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처음부터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들은 동일신조를 가진 같은 셈족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았으며, 최초의 이슬람공동체를 형성하였던 메디나 또한 원래 유대인이 건설한 도시였다.

따라서 현재 아랍제국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민족적, 종교적인 대립이기 보다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1880년대 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즉 19세기에 들어와 러시아와 東유럽으로 부터 민족 차별정책에 의한 유대인 탄압운동이 확산에 이르는 과격성을 보이게 되자 영국에 있던 유대인 협회(Anglo-Jewish Association)를 주축으로 한 서구의 유대인 자본가들은 1882년, 英國으로부터 팔레스타인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에서 피난나온 유대인들을 정착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정착한 유대인의 숫자가 6만명선에 이를 즈음인 1897년, 스위스에서 결성된 세계 시온주의가 연합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창설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英國 정부와 협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적인 이질문화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들의 유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코란과 하디스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 두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므로 英國정부에서는 아프리카의 우간다(Uganda)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제7차 세계 시온주의자 연합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어느 영토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英國 정부는 獨逸로

부터 민족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유대인들의 지원을 얻을 수 있고 美國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美國 유대인 위원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시온주의자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지게 되고¹⁰⁾ 마침내 1917년에는 이른바 발포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국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2) 시오니즘의 주요내용

발포어 선언문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해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의 인권과 종교적인 권리 혹은 정치적인 지위를 해치는 어떤 조치들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오니즘은 그들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일부 유대인내에서도 비민주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온동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전세계 유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고무적인 일로서 찬양받아야 하며 팔레스타인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성지이며 유대교의 발상지이므로 당연히 유대인의 것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② 유대민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재건되는 이스라엘은 국가의 자립경제를 도모하고 군사적인 힘을 갖추 수 있도록 국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를 가능한 한 넓게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과거 유대인이 정착하였던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③ 美國·프랑스·英國 등 해외 식민지를 갖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유대국가의 건국을 도와주었고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므로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여야 한다.

④ 미래의 이스라엘은 아시아·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이민족에 대하여 신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성이 실증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시오니즘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오늘날

註10)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계 유대인들이 반정부 활동을 벌여왔으며,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하였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을 무력으로 차지하기 위해 일으켰던 4차례의 中東전쟁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임이 자명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항구적인 중동평화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3) 아랍세력의 대응

유대인 이주자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외세에 의한 이스라엘 건국이 기정사실화되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시리아, 이라크지역에서는 英國과 프랑스에 의한 위임통치를 반대하고 美國 월슨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입헌군주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토후로 임명된 후세인(Husain)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어 유대인들에 대한 토지판매중지, 유대인의 이주 중지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위임통치정부에 노골적인 태항의지를 보였으나 그가 두아들인 압둘라(Abdullah)와 파이잘(Faysal)을 각각 요르단과 이라크의 왕으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보장받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됨에 따라 일차적인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약속된 독립은 오히려 프랑스와 英國이 각각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분할통치하는 상태가 고착화됨으로써 불가능한 기미를 보이게 되자 아랍민족주의의 발흥을 뒤에 업은 시리아의 정치지도자들은 파이잘을 국왕으로 선출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프랑스는 오히려 군대를 동원, 아랍민족세력을 무력으로 전압함과 아울러 레바논을 시리아로부터 별개의 행정지역으로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시오니즘이 막강한 서구세력의 힘을 배경으로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였는데 반하여 아랍진영에서는 각 지역 지도자간의 정치적 알력이 심화됨에 따라 사분 오열되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능동적인 대응책을 펴지 못하고 다만 일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무모한 테러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4. 아랍통일의 기본 이념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무슬림들의 평등성을 유지하였던 초기 이슬람공동체는 우마이야왕조 이후 세습적인 권력승계와 같은 무슬림끼리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둘러싼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순수성을 상실한 채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이민족의 지배하에 있던 일한국시대와 오스만 제국시대에서도 지배자인 몽고족과 터키족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종교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슬람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교도인 서구열강에 의해 분할 강점당하는 비운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토후를 중심으로한 분열상이 심화되어 마침내는 시온주의자들에게 2000여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강토를 빼앗긴 것은 물론 자력에 의한 주권회복을 시키지 못한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적인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의 출현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제각기 독립한 아랍국가내에 젊은 지식층과 장교들을 중심으로 초기 이슬람공동체의 순수성과 평등성을 회복하며, 왜곡된 역사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들은 모든 무슬림들이 하나의 코란과 하디스에 의하여 강력한 응집력을 보였던 메디나의 움마와 초기 압바스 왕조의 재현을 지상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알라신에게 귀의한 모든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인 국경선이 무너지는 완전한 이슬람공동체인 통일아랍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명제를 뛰어넘는 신의 부름이자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신앙적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아랍통일의 기본적 개념이다.

5. 아랍통일의 노력과 그 실패

(1) 바아스(Baath)당의 출현

알라신에게 귀의한 모든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국경선이 무너지는 완전한 통일아랍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신앙적 의무에서 출발한 아랍통일의 노력도 그 방법상의 차이와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대립하는 분열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나셀주의와 시리아 바아스당의 출현이다.

1941년, 시리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자 1930년대 파리에 유학하였던 미셸 아플락(Michel Aflaq) 과 실라 비타르(Silah Bitar)는 아랍민족의 부흥

을 위해서는 아랍통일이 절대적인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혁명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바아스당을 창설하였다.

바아스는 아랍국가들이 통합되어야만 국제적으로 강대세력들과 보조를 맞추어 인류문화 창달의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시오니즘에 대항하는 군사적 안전보장과 빈곤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립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아랍의 각 국가들은 아랍족의 공통된 역사, 언어 및 이슬람공동체를 기반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토후중심의 헌집권층과 서구의 자본과 연합하고 있는 일부 기업가 및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무지한 군중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자유·평등·아랍통일·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여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바아스당은 1952년 아크람 후라니(Akram Hourani)가 이끄는 아랍사회주의당과 통합하여 아랍바아스사회주의당(Arab Baath Socialist Party)을 결성하고 공산당과의 연정에 참여하였으며, 1958년에는 나세르에 의하여 주도된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합국인 통일아랍 공화국(United Arab Republic)의 창설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러나 나세르의 일방적인 국사처리에 불만을 품은 아랍바아스 사회주의당은 연합정부로부터의 일반적인 탈퇴를 선언하니 통일아랍공화국은 3년만에 해체되고 바아스당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여 시리아의 정권은 민간에 이양되었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1958년, 외세에 의존적이었던 하심가의 파이잘 2세를 군사 쿠데타로 축출한 카셈(Kassem)정권이 극렬 공산세력의 파괴활동과 소수민족인 쿠르드족(Kurd)의 자치 요구에 시달리자 1963년에는 시리아의 바아스사회주의당을 추종하였던 이라크의 바아스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고무된 시리아에서도 바아스당 청년장교들에 의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바아스당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실질적 집권세력으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바아스당은 아랍통합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이 통합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관점을 떠나 아랍의 어느 곳이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진취성을 보인 것과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이 지부를 둔 유일한 범아랍민족주의 정당이라는 점 및 뚜렷한 정책이념과 통합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실질적 집권당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아랍통일을 추구하는 커다란 줄기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2) 나셀주의(Nasserism)

이집트에서는 1919년 부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받은 대규모 반영폭동이 발생하자 영국은 1922년 이집트의 형식적인 독립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英國은 20년간의 친선조약을 통해 이집트군이 수에즈운하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어까지 이집트 방위와 수에즈운하 관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이집트는 영국군의 주요 보급기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이집트는 불불교역의 중심지였던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이 독립하는 아랍권의 지도국이 될 것을 예상, 아랍연맹(The Arab League)의 창설을 적극 주도하였으며, 1948년에는 이스라엘 건국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이라크, 시리아 및 요르단과 함께 시오니즘에 맞서는 제1차 중동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랍연합군의 대패로 끝나게 되자 이집트군부내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과 아랍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세의존적이며 부패한 왕정을 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기운이 일게되어 마침내 1952년 나세르(Nasser)가 이끄는 자유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하여오던 英國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앞세워 군사적인 보복을 뜻하는 제2차 中東전쟁을 일으켰으나 美國과 소련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표방하고 제3세계 비동맹그룹의 지도자를 자처하였던 나세르의 외교적 수완에 의하여 이 전쟁이 끝나게 되자 나세르는 일약 아랍민족주의와 통일을 상징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에 고무된 나세르는 1958년 시리아와의 합병으로 통일아랍공화국을 탄생시킨데 이어 北예멘을 포함시킨 통일아랍국(United Arab States)을 결성하였으며, 1962년 예멘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왕정이 무너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하게 되자 군대를 파견하여 신정부를 지지하는 등 아랍의 맹주임을 과시하였다.

나셀주의는 군주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혁명과 토지개혁으로 시작되는 사회혁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제국주의와 그들 세력에 의존적인 왕권타도를 제1차적인 목표로

삼고 이라크, 예멘, 리비아의 군사 쿠데타를 적극 지원 하는 한편 제1차 중동전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1967년에는 제3차 中東전쟁에서 아랍세계의 지도국가로서 참전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으로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를 잃는 참패를 당함으로써 그의 지도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계속>

에너지절약 실천사항

■주택단열

- 아파트 난방에 열량계를 부착하자.
- 실내에는 자연조명을 적극 활용하자.
- 겨울에는 채광, 여름에는 차광에 힘쓰자.
- 주택의 지붕, 천정, 벽을 단열하자.
-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2℃로 유지하자.
- 창문은 이중창이나 복층유리로 하고, 틈새 바람을 막자.
- 백열등보다 형광등을 사용하자.
- 실내는 밝은 색으로 꾸미자.
- 조명은 실내 넓이에 알맞은 밝기로 하자.
- 빈방등 쓰지 않는 곳의 불은 소등하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등을 확인하자.
- 전구 및 반사판은 자주 닦자.
- 복도 현관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자.
- 주택단열시 단열재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자.
- 열사용기기는 "KS" 또는 "열" 표시의 규격품을 쓰자.
- 보일러는 자주 청소하자.
- 노후 보일러는 교체하자.

■빌딩일반

- 건물내 에너지절약 전담요원을 두자.
- 건물의 컴퓨터 제어방식을 도입하자.
- 각종 설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자.
- 용도별 사용량을 기록 분석하자.

■설 비

- 저효율 설비를 과감히 절약형으로 교체하자.
- 페열회수를 강화하자.
- 설비 및 배관을 보온하자.
- 냉·난방 배관은 불필요한 곳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획을 구분하자.
- 밸브는 정확히 여닫자.
- 태양열 이용설비를 설치하자.
- 최대 전력 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자.
-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부하측에 설치하자.
- 냉동기는 가스식 냉온수기기로 설치하자.
- 축열조를 이용한 심야전력을 사용하자.
- 냉각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자.
- 냉각팬 회전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제어하자.
- 에어콘의 필터, 냉각코일의 청소를 철저히 하자.
- 차광(브라인드) 커튼을 설치하자.
- 공조기 운전방식은 가변 풍량 방식으로 하자.
- 공조기 필터의 청소를 철저히 하자.
- 방열기의 개폐(開閉)는 일괄제어방식으로 하자.
- 공조기 배기열 회수방식을 채택하자.
- 3층이하는 걸어서 다니자.
- 엘리베이터는 격층운행 하자.
-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하자.